

고속철 천성산구간 현장 검증 연기

시설공단 '법원감정' 반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해 '법원감정'을 실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9월 20일로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9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

철도시설공단은 9월 16일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중대)에 보낸 '법원감정'에 대한 공문에서 "환경부와 시민행동 간에 있었던 전문가 검토를 그냥 진행하는 편이 법원감정보다 좋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법원감정을 보류했다고 도통농 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이 9월 13일 재개한 도통농 소송 3차 심리에서 결정된 천성산 구간에 대한 '법원감정'의 구체적 실시는 그 이후에야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시민행동 측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이의 제기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환경부 산하기관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감정'을 할 경우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현장검증에 상당부분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천미희 · 강유신 기자

한·중불교 선수행 체협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제4회 한·중불교 선수행 체협 행사를 9월 16일부터 열흘간 중국 복건성 일대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종단협이 매년 실시하는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대회의 교류 사업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종단협은 한·중 양국간의 선수행 전통을 교류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 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중국불교 선체협, 중국불교에 대한 이해 등으로 현대 중국불교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우리측 방문단은 해인사 강원 법진, 오성 스님 등 주로 강원 교직자 스님들을 위주로 구성됐다.

조용수 기자

직지엔 무관심... '자리'엔 큰 관심

시 흥덕사지 복원 계획에 "운영권 달라" 경쟁만

청주 불교계, 직지 세계화 축제에 참여 외면

문이다. 청주시가 시민프로그램까지 공모했지만 신청 수가 100여 개나 넘는 청주 불교계의 응모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몇 차례나 참여를 요청했지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사암연합회의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직지축제는 직지가 세계기독교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청주시가 마련한 행사. 현재 청주시는 직지상을 제정하고, 시 의회 차원의 '직지 세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직지특위)'

를 구성했는가 하면, 직지세계화추진단을 발족시키는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 불교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사찰 간 단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청주 사암련의 한 관계자는 "작년 직지 설명 강연회 때 사암련 합창단 외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창피해서 얼골조차 들지 못할 지경이였다. 자기 사찰 행사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며 자조 섞인 탄탄을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청주시가 직지를 간행했던 흥덕사지 복원을 추진하자 일부 스님들이 "복원되면 사찰 운영권을 달라"며 경쟁(?)을 벌여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일부 스님들은 "청주시가 불교계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의 몰상식이 극에 달하자 아예 시 관계자들 입에서 "스님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시 직지축제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시 차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직지의 한글번역과 영문화 작업을 요청해, 현재 동국대경원에서 한글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직지 세계화는 청주불교 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정도의 대표 유수 스님을 비롯한 정도행사 100여명은 9월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빈그릇운동 10만인 서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빈그릇운동 동참합시다"

정도회 전국돌며 10만인 서약 거리캠페인

정도회가 빈그릇운동 전국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도회는 9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빈그릇운동 전국 캠페인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14일 부산, 16일 대구, 17일 울산, 20일 마산, 21일 마산에서 빈그릇운동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고, 22일부터는 대전, 23일 광주 등에서 서약운동과 거리캠페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역 선포식 및 기자회견에는 한국불교한교교육원 원장 유수스님,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 정도회 주부 활동가, 회원 등 1백여 명이 동참했으며 기

사회전 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서약 받기에 나섰다.

유수 스님은 "빈그릇운동은 내 건강, 지구 환경을 지키고 굶주린 이웃을 살리는 실천"이라며 "빈그릇 운동이 오늘 부산 선포식을 계기로 폭넓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 혹은 단체 서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체 서약을 원하면 전국 정도회 법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도회는 빈그릇운동의 실천 항목으로 △재료물 온전히 써서 요리하기 △적당량 요리하기 △1식 3전의 소박한 밥상 차리기 등을 제안했다. (02587-8990) 글·사진=천미희 기자

달마마라톤 3천여명 '하나로'

'망~!'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소리와 함께 12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한다.

밤새 내린 폭우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땅이 질퍽하게 젖어 달리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참가자들은 신발 끈과 함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매며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9월 1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가 마련한 '제1회 달마마라톤대회 및 행복문화축제'는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한 가운데 1부 마라톤대회와 2부 행복문화축제, 3부 연예인과 함께하는 '오늘은 좋은 날', 4부 회합의 마당으로 진행됐다.

연령과 성별만들 마라톤에 출전한 이유가 제각각인 선수들은 반호표와 기록측정계를 몸에 부착하고 실

력별로 하프코스과 10km, 5km로 나눠 달리기 시작했다.

40여분이 지나자 단거리 코스인 5km 완주자들이 속속 골인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완주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완주자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에 화답했다.

개막식은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과 포교원장 도영 스님, 종회의원 일민 스님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백장기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욱 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사진=김은경 기자

9월 1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달마마라톤대회에는 3000여 사부대중들이 동참했다.



김철우 기자

조건부 복지시설 대책마련 시급

미신고 복지시설의 조건부 전환 만료기간이 내년 7월로 다가오면서 불교계 조건부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조건부 시설로 바꾼 불교계 복지시설은 30 여곳. 이들 시설에는 지금 장애인 노인 노숙자 청소년 아

동 등 6백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양성화에 따른 재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으로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올 6월에 △2006년 6월까지 시설장 자격요건 충족 △2007년 6월까지 종사원 자격요건 충족 등을 골자로 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 운영자들에게와 닿는 실감지수는 턱없이 낮다.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이 미비하고, 자격선정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불교계 복지 전문가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건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의 △시설의 증개축 지원 △종사자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후원 △일일적인 입소기준 현실화 △소규모 가정 그룹홈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기자

독특소리

불교 현대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은 '폭력성'이 여전히 우리 내부에 잔존하고 있다. 최근 큰 사찰 주요 소인자 스님들과 관련된 두 건의 폭력사건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의 한 유력 사찰에서 한 스님이 술을 마신 뒤 재가종무원을 폭력 행사한 일이 발생했다. 그 스님은 이후 참회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힘없는(?) 사찰 종무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상북도 소재한 큰 사찰의 스님도 최근 경내에서 다른 스님에게 폭력을 가해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한다.

지난 2001년 조계종 내에 '종단폭력 근절대책 소위원회'가 꾸려져 자성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여전히 불교계 내에서 폭력이 '현재진행형'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폭력문화에 길들여져 '폭력불감증'에 걸려있을 뿐 아니라 같은 절집사구리는 빼놓아진 한 스님이 술을 마신 뒤 재가종무원을 폭력 행사한 일이 발생했다. 그 스님은 이후 참회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힘없는(?) 사찰 종무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통체의 은폐하겨나 비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내 인의 폭력이 우리인의 폭력이 되고 우리인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면, 폭력 앞에 불교계 모두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불교계와 폭력, 이제 서로 차디찬 결별의 말을 내뱉을 때다. 남동우 기자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의 희망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일보사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개산일에 즈음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원도의 대표적 축제'라는 모토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국민문화·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로 마련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오색 가을 단풍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껏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평창군,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산사영화제

문화와 웰빙의 시대에 찾아가는 영화사사회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산사영화제를 개최합니다.

- 상영영역 : 초승달과 밤베
- 작품소개 : 정채봉선생의 "초승달과 밤베"를 원작으로 곱씹은 삶 속에서 무공해 소년이 그려가는 천진난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본선출품작
- 감독 : 장길수 ● 출연배우 : 이요선, 한예린, 장서희 등
- 일시 : 2004. 10. 8. (금) 19:00 ~ 21:00
- 장소 : 월정사 적광전 앞
- 주관 : 월정사

제2회 산사음악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오대산에서 제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출연진 : 벨라트릭스, 첼로사랑, 이정, 영력스클럽, 정민, 남상우, 김병조
- 일시 : 2004. 10. 9. (토) 19:00 ~ 20:30
- 장소 : 월정사 적광전 앞 야외무대
- 주관 : 월정사

한·중 오대산 사진전

한·중 불교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문수성지인 오대산의 자연풍광과 사찰들의 일상을 담은 한·중 오대산 사진전을 천년의 전나무 숲길에서 전시합니다.

- 일시 : 2004. 10. 8. ~ 11. 30.
- 장소 : 전나무 숲길 및 응금루 상설전시장
- 주관 : 월정사 성보박물관

* 이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및천견, 보살계법회, 헌다례 및 육법공양, 유물보는 오대산 문수신앙특별전, 오대산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대산 사진 공모전, 국제 불교문화공연, 영산적법 및 악춤 시연, 오대산 등반대회, 지역주민민간교, 강원도 특산물 전시, 장애인들이 주봉스님 서목전, 서각전, 티벳타키전, 서예전, 예술연등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기 2548. 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님
강원일보사 사장 최 승 익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등산리 63
TEL 033-332-6664~5